

2025 정책 장터 - 우리들의 군산

시민과 함께하는 군산시 정책콘서트

시민 질문 & 제안 답변

연번	내 용	비 고
1	큰 도서관 같은 문화관을 만들어 주세요!	도서관관리과
	<p>우리시는 2022년 금강도서관을 개관하여 동부권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였고, 서남부 지역 주민의 생활편의 및 지식정보요구 해소를 위해 군산 상상도서관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p> <p>군산 상상도서관은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문화센터의 형태로 대형 도서관뿐만 아니라 전시공연홀, 문화강좌실, 청소년 공간 등을 아우르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p> <p>다만, 대규모 예산과 부지 확보가 필요한 사업인 만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현재 운영 중인 도서관을 중심으로 장서 확충, 독서환경 개선,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독서문화 발전에 힘쓰겠습니다.</p> <p>앞으로도 도서관의 성공적인 신축 건립을 준비하는 동시에, 시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독서와 문화가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2	새만금 지역과 임피-대야간 도로공사 과속 방지턱이 일부 구간에는 너무 돌출되어 차량피해가 염려됩니다. 경사가 완만한 것으로 해주세요.	건설과
	<p>도로 공사 구간에 설치된 과속 방지턱으로 인해 차량 운행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양해말씀 드립니다.</p> <p>기설치된 방지턱 일부가 표준 규격보다 높거나 경사가 급해 차량 충격이 큰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규격을 벗어난 방지턱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하여 경사를 완만하게 조정하거나 안전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개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3	대야-임피면사무소간 봉황공원 도로확장 공사는 언제쯤 완공되나요?	건설과
	<p>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 중인 대야~임피간 지방도 71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는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p> <p>공정률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나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완공되면 대야면과 임피면을 오가는 주민들의 통행 편의와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p>	

연번	내 용	비 고
4	<p>대야 노인 복지관 중식대가 5,000입니다! 인접 익산시 노인복지관은 2,500원이라 합니다! 단가가 형평에 어긋나서 조정을 할 수 없는지요? 꼭 현금만 필수인데 카드(소비쿠폰) 등도 사용 가능 방법 없는지요?</p>	경로장애인과
	<p>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 무료급식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군산시 노인복지관의 중식 식대는 현재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지침에 따라 저소득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 실비 수준의 급식비 징수가 가능합니다.</p> <p>실비 기준은 각 시군별로 자체 판단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저소득 노인과 일반 노인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하게 5,000원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p> <p>간혹 타 지자체의 일부 노인복지관 운영법인에서 자체 법인전입금, 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급식비 단가를 낮춘 경우가 있지만, 현재 전북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전북도 지침에 따라 운영 중으로 확인되었습니다.</p> <p>우리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어르신 식사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부담을 덜어드릴 방안을 마련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제방식은 노인복지관이 영리법인이나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카드나 지역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p>	
5	<p>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제공인력, 노인센터 사회복지사 등)</p>	경로장애인과
	<p>우리시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의 헌신에 걸맞게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p> <p>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인력의 급여 현실화를 위해 바우처 서비스 단가 인상을 전북도와 보건복지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p> <p>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의 인건비 지원 단가 상향 조정에 대하여는 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 (인건비 지출비율)에 의해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사안입니다.</p>	

연번	내 용	비 고
	<p>별도로 시 차원에서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복리후생비 지원 확대, 처우개선수당 지급 등 재정 지원을 검토하고, 정기적인 역량 강화 교육과 심리 상담 지원 등을 통해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p> <p>향후 예산 확보 상황에 맞춰 돌봄인력 지원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 진작과 장기근속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p>	
6	<p>안전한 노인일자리 현장을 만들어주세요! 고령시대 노인들의 안전을 위한 실내(보조행정 등)형 일자리를 각 부서별로 만들어 주세요!</p>	경로장애인과
	<p>현재 군산시 노인일자리 157개 사업단에 12,340명의 노인이 참여 중이며, 이 중 실내활동을 하는 사업단은 112개 사업단 6,972명(전체 참여자의 56.5%)이 참여 중으로 다양한 종류의 일자리를 발굴하여 배치하고 있습니다.</p> <p>또한,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의 안전을 위해 어르신들의 신체조건에 맞춰 무리 없는 업무를 제공하고, 근무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 교육과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p> <p>실내(보조행정 등) 일자리를 각 부서별로 만들어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일자리 참여자 배치의 수요처(부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안으로 행정정보조 등 실내 활동 노인일자리 발굴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p>	
7	<p>한두명 있는 경로당은 정리해서 남는 정회원 어르신은 가까운 경로당으로 모시고요, 경로당의 지역에 사는 분을 기준해서 정리해 경로당의 수를 줄여서 잘 운영되는 곳에 더 지원해주세요.</p>	경로장애인과
	<p>말씀하신 취지처럼 경로당의 회원 수를 고려하여 인근 경로당과 통합하고, 운영 활성화된 곳에 집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경로당이 단순한 여가시설을 넘어 마을 공동체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고, 어르신들의 생활권과 이동 여건이 크게 다르다 보니 인위적인 통합·정리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p> <p>특히 고령 어르신들의 이동 불편, 지역 간 형평성 문제, 기존 회원 간 갈등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p> <p>아울러, 시에서는 매년 연초에 주소지와 가까운 경로당에 가입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 현황을 일제 정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로당 운영 내실화를 위해 이용자 수, 시설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활성화된 경로당에는 점진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p>	

연번	내 용	비 고
8	비응도가 너무나 침체되었어요. 관광객이 머물렀다 갈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관광진흥과
	<p>비응도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확충과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비응마파지길 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하여 주간에는 비응마파지길 탐방을 하고 야간에는 경관조명을 통해 빛 체험을 하는 등 비응도 일대를 체류형 관광체험 공간으로 조성 중입니다.</p> <p>향후 새만금 신항만 개항과 연계하여 비응도를 해양관광 거점으로 삼고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방문객이 찾아와서 머무르고 소비하는 관광지로 만들겠습니다.</p>	
9	군산에 몇 개의 캠핑장이 있는데 반려동물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관광진흥과
	<p>현재 운영 중인 일부 공공 캠핑장의 경우 시설 규정상 반려동물 출입이 제한되어 있으나, 반려인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p> <p>우선 신규로 조성될 캠핑장에는 반려동물 동반 가능 구역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고, 기존 캠핑장에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범적으로 반려견 동반 사이트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p> <p>다만 다른 이용객들의 안전과 위생도 중요하므로 펫티켓 교육 및 반려인 준수사항을 마련하여 갈등을 예방하겠습니다. 향후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캠핑 환경을 조성하여 반려가족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10	맛집을 더더 많이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대책	관광진흥과
	<p>군산의 풍부한 음식문화를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맛집 홍보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군산시에서 대표 맛집을 선정하여 위생·서비스 등 품질이 검증된 음식점 36곳에 대해 맛집 지정서 수여와 상수도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으며, 시 누리집과 홍보책자를 통해 대표 메뉴와 위치 등 마케팅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p> <p>이와 함께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숨은 맛집과 신생 맛집을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방송 프로그램과 연계한 콘텐츠 제작으로 전국적인 홍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지역 인기 음식과 특산물을 테마로 한 짬뽕축제 등의 행사를 열어 미식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p> <p>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전략으로 군산의 맛집들을 널리 알려 지역 외식업과 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p>	

연번	내 용	비 고
11	지곡동 학생들 학교계획은 있을까요?	교육지원과
	<p>학교건립은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전라북도교육청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학생 수 증가나 주택 개발 등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신설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전라북도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는 지역 학생들이 통학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육청과 함께 학교 신설 또는 통학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향후에도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쓰겠습니다.</p>	
12	동네문화카페 예산을 더 늘려서 더 많은 시민이 문화생활을 즐겼으면 합니다.	교육지원과
	<p>동네문화카페는 군산시가 2018년에 민선 7기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시작하여 현재 9,500여개의 강좌에 5만여명의 수강생이 참여하고 7,500여명의 강사와 1,700여명의 매니저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많은 시민이 참여할 만큼 만족도가 높은 생활문화 프로그램으로 성장하였습니다.</p> <p>시민 여러분의 호응에 힘입어 문화 욕구를 더 충족시키기 위해 시에서는 매년 동네문화카페 운영예산을 확대해 오고 있으며, 차년도에도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수업의 내실을 기하고자 기수별 강좌 수와 운영 기간을 늘려서 운영할 예정입니다.</p> <p>또한, 읍·면 지역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읍·면 지역 집중발굴(학습장소 등록 홍보 및 작은 도서관 등 학습 가능한 장소 범위 확대 등) 및 강좌 신청 시 우선 배정 등을 통해 시민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다양한 배움을 접하고 나눌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합니다.</p> <p>시민 맞춤형 근거리 평생 학습권 제공을 통해 평생학습 일상화와 동네 상권 회복 및 시민 주도적 학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 누구나 골고루 다양한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도록 동네문화카페가 함께하고 노력하겠습니다.</p>	
13	전동킥보드 운영을 안하면 안될까요? 항상 보면 어른들보다 중고등 학생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것 같아 위험하고 사고날까 불안합니다.	교통행정과
	<p>말씀하신 대로 공유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해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법적(도로교통법)으로 합법적인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이를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안전과 질서 확보를 위해 우리 시는 제한, 관리, 안전 유도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p>	

연번	내 용	비 고
	<p>우선 개인형 이동장치의 전용 주차공간 조성을 시범적으로 완료하였고, 금년 조례(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하여 주차 및 거치 제한 구역을 설정하고 단속을 강화하여 무단 방치로부터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p> <p>아울러, 걱정하시는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관리 방안에 대해 경찰서와 연계하여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 및 헬멧 미착용 등 안전수칙 미준수에 대한 단속 추진을 강화하고, 사업자를 통해 면허 확인 등의 규제를 강화할 것이며, 다양한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14	<p>RE100이 미래산업의 마중물이라면 다음 스텝인 기업은 어떻게 유치되고 있나요? 군산에 많은 세비를 줄 수 있는 데이터센터(SK 등)의 진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p>	기업지원과
	<p>2018년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 이후 2022년 전국 최초 스마트 그린산단 지정, 2023년 이차전기 특화단지 지정으로 RE100관련된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였습니다. 현재 새만금산단에 78개 기업이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35개 기업이 가동 중입니다.</p> <p>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지정을 위해서 기업유치 전략이나 저렴한 전력 공급 등의 인센티브 방안을 모색 중이며, RE100산단 지정 시 글로벌 기업 등 투자유치가 가속화 될 전망입니다.</p> <p>SK가 추진한 데이터센터 사업은 전력 인프라 문제로 지연되었으나, 금년 하반기에 수상태양광 사업이 착공되면 전력문제가 해결되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p>	
15	<p>2026년 혹은 올해 하반기에 군산시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요?</p>	기획예산과
	<p>군산시는 현재 미래 신산업 육성과 정주여건 개선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을 핵심 프로젝트로 삼아 2030년까지 60여 개 기업 유치와 1만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새만금 신공항 건설과 신항만 개발 등 대규모 SOC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p> <p>아울러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교육 인프라 강화, 군산전북대병원 건립(2028년 개원 목표) 추진 등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인구 유출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사업들이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에 걸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p>	

연번	내 용	비 고
16	중장기적인 시정책이 궁금합니다. (복지관련, 시민을 위한 정책 등)	기획예산과
	<p>군산시는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를 목표로 골목경제를 지키고 미래산업을 유치하는 등 산업경제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또한 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주환경 개선에도 힘써왔습니다.</p> <p>새 정부 출범과 함께 RE100 산업단지 지정, 새만금 신항·국제공항을 축으로 한 트라이포트 구축 등 미래 성장과 직결되는 전략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중장기 과제입니다.</p> <p>하지만 시정의 출발점은 시민의 삶입니다. 돌봄 공백 해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어르신 복지 프로그램 확대 등 복지 체계를 강화하고, 제초·도로정비·하수로 점검 같은 생활밀착형 행정도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작은 불편을 예방하고 즉시 해결하는 것이 곧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이며, 정부가 지향하는 ‘기본사회’의 실현이기도 합니다.</p> <p>우리시는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사업과 오늘의 생활을 지키는 복지·생활행정을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가며 시민 여러분께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고, 동시에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도시를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17	시 예산, 특히 전북도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
	<p>어려워진 재정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군산시는 세입 확충과 예산 절감, 국도비 확보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 및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전북도 및 국회와 공조를 통해 국가 예산에 군산시 사업이 반영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전북도로부터의 교부세나 보조금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필요한 예산이 유지되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p> <p>아울러 자체적으로는 세수 기반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자원 감소에도 핵심 시정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p>	

연번	내 용	비 고
18	KTX역 언제 생기나요?	도시계획과
	<p>군산 지역에 KTX를 유치하기 위해 국가 철도망 계획에 연결 사업이 반영되어 추진 중입니다. 현재 서해안 고속철도(장항선) 2단계 구간인 홍성~대야 구간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 구간이 완공되면 군산까지 준고속철도 운행이 가능해집니다. 군산시는 향후 KTX가 군산역에 정차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철도공사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하루빨리 군산에서도 KTX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p>	
19	반려동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군산에도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는 문화생활 시설계획은 있나요?	동물정책과 관광진흥과
	<p>늘어나는 반려인구를 고려하여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시설 조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교육 등을 통해 시민들이 불편 없이 반려견과 외출 할 수 있는 성숙한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p> <p>앞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반려동물 행사 등 각종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으며, 타지역 사례들을 참조하여 반려동물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생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p>	
20	지역의 미래산업의 소식을 잘 들을 수 있게(볼 수 있게) 시정 계획에 대한 공공 DATA 공개 내용을 쉽게 접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이를 운영하는 전담 기관이 필요합니다.	디지털정보 담당관
	<p>건의하신 “시정계획에 대한 공공데이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별도 플랫폼 마련” 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p> <p>군산시는 이미 시정계획과 관련 자료를 공공누리집(www.gunsan.go.kr)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정보담당관실에서는 시내버스 노선, 1인 가구 현황, 유동인구·소비동향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플랫폼(www.gunsan.go.kr/data)을 운영하여 시민 여러분께 정보 접근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p> <p>현재로서는 별도의 신규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이 군산의 미래산업 추진 현황과 시정계획을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공공 데이터 공개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p>	

연번	내 용	비 고
21	군산시 시향활동 및 클래식 음악을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장을 많이 열어주세요.	예술의전당 관리과
	<p>군산시립교향악단(시향)은 각각 정기·기획 연주회와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등 다양한 공연을 개최하고 있으며 테마 공연을 기획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일반 시민은 물론 직장인, 학생,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새로운 장르의 다양한 특별 공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연 홍보를 강화하고 저렴한 입장료 정책을 유지하여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어린이·청소년 대상 해설 음악회 등 클래식 입문 기회도 확대하겠습니다.</p>	
22	군산시 청렴도가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걱정이 많은데요, 군산시의 청렴도가 낮은 이유와 무엇이고 앞으로 개선할 계획인지 말씀해주세요.	감사담당관
	<p>군산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가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난 데 대해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지적된 일부 관행적 업무 처리와 부서 간 소통 부족 등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p> <p>그동안 6급 이상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실시, 맑은 군산 추진단 구성, 전 직원 청렴 교육과 캠페인 전개 등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부족했던 만큼, 앞으로는 청렴도 저해 요인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p> <p>구체적으로는 보조사업 등 민원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청탁 신고 체계를 강화하며, 감사담당관 개방형 직위 운영을 통해 공직 내부 비리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p> <p>아울러 청렴교육을 강화해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고, 시민 감사관 제도 활성화 등 시민 참여 감시를 확대하여 청렴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23	참전명예 수당을 타시도에 기준해서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p>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용사 예우를 위해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의 인상 요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군산시도 다른 지자체 수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당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재정 여건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인상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p> <p>현재 전라북도 차원의 지원 기준 변경 동향을 주시하면서 시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참전유공자분들께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우 수당 인상 결정이 이루어지면 신속히 예산을 확보해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p>	

연번	내 용	비 고
24	월남 참전자회 소속 시민입니다! 보훈회관 주변이 제초작업이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협력하겠사오니 작업 예정일 공지하여 작업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보훈회관 주변의 환경 정비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관 주변의 잡초와 수풀을 확인하여 9월 8일(월) 제초작업 진행이 계획되어 있던 바, 예정대로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제초작업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환경정비 계획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국가에 헌신하신 보훈 가족들이 쾌적한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	동지곡길 11번지 앞 은행나무 좀 바꿔 주세요. 다른나무들은 다 수나무로 바꿨는데 거기 한그루만 암나무로 심어놔서 냄새로 힘들어요. 민원전화 넣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개선이 없어요.	산림복지과
	말씀 주신 동지곡길의 암나무 은행나무로 인해 주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해당 은행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거나 열매 맺지 않는 수종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민원 접수 후 조치가 지연된 것에 대해 사과드리며, 관련 부서에서 현장을 재확인한 뒤 조속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식재 시 수나무 식재 등 세심한 관리로 이런 불편을 예방하겠습니다.	
26	환경파괴 방지를 위한 녹지공간 확대	산림복지과
	군산시는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보전을 위해 도시 내 녹지공간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도심 내 폐철도를 활용한 군산 철길숲, 경포천 생태하천 복원으로 조성한 서래숲길, 이 외에 다양한 도시숲 사업지 등 도심 속 녹지축을 확충하여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하여 기존 녹지를 지키기 위해 사유토지 보상사업을 추진 중이며, 도로변 자투리 공간에 가로수를 심고 하층부 녹화를 통한 도시 전반의 녹지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녹지 공간 확대 노력을 통해 미세먼지 차단, 열섬 완화 등 환경파괴 방지 효과를 거두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내 용	비 고
27	<p>제가 은파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노인일자리 하는데 화장실 옆에 하얀 동백꽃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꽃나무가 큰 단풍나무와 벚꽃나무에 가려 빛을 보지 못하고 각종나무에 가려서 크지 못하고 숨을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백나무 좀 옮겨 주세요. 맞은편 저수지 귀퉁이로 옮기면 되겠습니다.</p>	관광진흥과
	<p>은파호수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인근 동백나무의 생육 환경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식수 이식은 고사율이 높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해당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동백나무의 생장에 지장이 있을 시 옮길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p>	
28	<p>월명산 어린이 숲놀이터에 화장실을 만들어주세요.</p>	산림복지과
	<p>현재 월명공원 유아체험숲 인근에는 은적사 체육시설 내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추가 설치할 경우 시설 중복 및 자연환경 훼손 우려가 있으며, 산지형 공원 특성상 오수관 연결이 어려워 정화조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로 인한 악취·위생 문제 발생 가능성도 있습니다.</p> <p>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화장실 추가 설치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기존 화장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p>	
29	<p>월명공원 수원지 주변에 감나무(재래종) 식재 부탁! (낙엽 지는 늦가을 경치 만끽할 수 있음)</p>	산림복지과
	<p>감나무는 가을철 단풍과 열매로 운치 있는 경치를 제공하지만, 풍부한 일조량과 추위로 인한 동해 등 식재환경이 뒤따라 주지 않으면 열매가 열리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산지로 여러 병해충에 대한 방제 등 관리가 필요하여 여러 여건을 검토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순차적으로 수원지 주변에 재래종 감나무를 심어 늦가을에 주홍빛 감잎이 물드는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p>	

연번	내 용	비 고
30	새만금 개발 계획에 기업 유치 외에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레저 공간 등).	새만금정책 담당관
	<p>새만금은 기업 투자 유치뿐만 아니라 관광·레저 및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만금 일대에 대규모 해양레저 체험복합단지 조성을 진행하고 있어 가족 단위 레저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신항만 개발 등 핵심 SOC 사업을 통해 교통·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새만금호 주변을 생태공원과 캠핑장 등 휴양 공간으로 개발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머물며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p> <p>현재 정부 차원에서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관광·레저, 문화 공간 등 다양한 활용 방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도 관련 중앙부처와 새만금개발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변화된 기본계획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p>	
31	어린이 보호구역이 많이 있는데, 폐업한 유치원 앞쪽도 어린이 보호 구역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유치원 폐업, 또는 이전 시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부탁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
	<p>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폐원되었는데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남아 있는 사례에 대해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산시는 해당 사항을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관할 경찰서 및 교육청과 협의하여 실효성 없는 스쿨존 지정을 해제하거나 조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p> <p>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신중해야 하지만, 유치원·학교가 사라진 곳의 제한은 주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정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학교 신설·이전이나 폐원 등 상황 변화에 맞춰 스쿨존을 탄력적으로 관리하여, 안전과 주민 편의를 모두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p>	
32	대형차량 등 주차장 공간 해소(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교통행정과
	2.5톤 이상의 대형차량 등은 차고지 증명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내 도로변 등에 대형 화물차량 등이 주차되어 소음 발생과 미관 저해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나, 부지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번	내 용	비 고
	<p>현재 매년 실시하는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에서 산단에 있는 공영 차고지 이용 홍보를 계획하고 있으며, 영업용 화물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인지하여, 도로 환경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교통단속을 강화하여 불법 주정차를 억제하고, 운전자 대상 계도도 실시하여 시민 불편과 도시 미관 훼손을 최소화하겠습니다.</p>	
33	<p>군산 조선소 활성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p>	<p>신성장산업과</p>
	<p>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약 6년 만에 재가동을 시작하며 지역 고용 회복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가동을 위해 조선업 인력양성과 협력 업체 지원, 생산블록 물류비 지원 등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사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p> <p>최근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제시된 ‘MASGA 프로젝트(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는 양국이 조선·해양산업을 전략적 협력 분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합의라 할 수 있습니다. 미 해군은 향후 30년간 총 364척의 전투함 및 군수지원함을 건조할 계획이며, 매년 130~150척 규모의 함정 유지·보수(MRO) 예산만 약 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글로벌 MRO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강화되는 친환경 규제에 따라 선박의 정비·개조 및 성능 개선의 필요성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p> <p>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대형 도크와 우수한 조립·도장 설비, 오랜 경험을 가진 숙련 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 해군 함정 MRO 사업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군산은 서해안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우수한 사회간접자본, 군산항을 비롯한 물류 인프라, 조선소와 국가산업단지 기반의 산업 역량을 두루 갖추고 있어 관련 산업의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라 할 수 있습니다.</p>	

연번	내 용	비 고
	<p>이에 군산시는 중앙정부, 전라북도, HD현대중공업과 긴밀히 협력하여 조선산업 생태계 복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군산조선소를 중심으로 미 해군 함정 MRO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를 조성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고효율 선박 성능 개량과 노후 장비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등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영역을 넓혀가겠습니다.</p>	
34	<p>군산시 육아정책 중 문화, 예술,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은?</p>	<p>아동정책과 인구담당관</p>
	<p>군산시는 아동을 위한 문화 예술활동으로 어린이공연장에서 어린이 뮤지컬, 국악, 마술 등 아이들에게 맞춤형 공연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가천그림그리기 전국 대회를 통해 아동의 창의성과 예술적 소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어린이랜드에서는 바운싱 돔과 RC카 등 다양한 놀거리가 있어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고 아동의 창의성을 높이고 과학적 호기심을 충족하고 있습니다.</p> <p>또한 4세에서 초등 2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숲속에서 오감을 활용해 자연과 교감하는 ‘어린이 숲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토·일요일에는 맘껏광장에서 팽이치기, 딱지놀이 등 전통 놀이를 체험하며 신체 발달을 돕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p> <p>앞으로도 군산시는 아이들이 즐겁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예술과 체육 프로그램을 계속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어린이 문화·예술·체육 지원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과 :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 학생 전통예술 경연대회 등 ■ 체육진흥과 : 어린이 스포츠교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등 ■ 예술의전당관리과 : 어린이 공연장 기획공연 등 ■ 박물관관리과 : 주말 연극 인형극 공연 및 전래놀이 행사 등 ■ 교육지원과 : 농어촌 초등학생 방과후 음악프로그램 등 ■ 아동정책과 : 어린이 숲체험교실, 어린이 놀이활동 프로그램, 맘껏가족놀이터 등 ■ 시립도서관관리과 : 어린이 독서문화행사(작은도서관 행사 포함) 등 </div>	

연번	내 용	비 고																								
35	어린이집 보육예산이 궁금해요.	아동정책과																								
	<p>올해 우리시 어린이집 보육 관련 예산은 국비·도비·시비를 포함하여 약 581억원입니다. 현재 군산시에는 총 128개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며, 4천여 명의 영유아들이 보육교직원 1,300여 명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p> <p>주요 사업으로 ①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지원 284억원, ②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58억원, ③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64억원, ④ 급간식비 9억원 등 46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p> <p>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약 2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급간식비 지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지원, SOS 틈새돌봄 보육,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p> <p>특히 우리시는 SOS 틈새돌봄 보육을 시행하여 평일(야간), 주말, 휴일에 양육자의 근무 등으로 인해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무상으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돌봄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p> <p>10월부터는 외국인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를 일부 지원하여 외국인주민들의 조기 정착과 외국인아동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를 추가로 설치, 공보육을 강화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table border="1" data-bbox="308 1541 1193 1989"> <tr> <td>■ 자체 시비사업</td> <td>2,398백만원</td> </tr> <tr> <td>· SOS 틈새 돌봄 보육</td> <td>140백만원</td> </tr> <tr> <td>·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td> <td>58백만원</td> </tr> <tr> <td>·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td> <td>48백만원</td> </tr> <tr> <td>·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td> <td>309백만원</td> </tr> <tr> <td>·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명절수당 지원</td> <td>316백만원</td> </tr> <tr> <td>· 어린이집 1~2세반 운영비 지원</td> <td>492백만원</td> </tr> <tr> <td>·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td> <td>200백만원</td> </tr> <tr> <td>·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지원</td> <td>39백만원</td> </tr> <tr> <td>·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비 지원</td> <td>33백만원</td> </tr> <tr> <td>·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기자재 구입</td> <td>280백만원</td> </tr> <tr> <td>· 육아종합지원(육아지원컨설팅, 장난감,실내놀이터운영등)</td> <td>483백만원</td> </tr> </table>	■ 자체 시비사업	2,398백만원	· SOS 틈새 돌봄 보육	140백만원	·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	58백만원	·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48백만원	·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309백만원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명절수당 지원	316백만원	· 어린이집 1~2세반 운영비 지원	492백만원	·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200백만원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지원	39백만원	·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비 지원	33백만원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기자재 구입	280백만원	· 육아종합지원(육아지원컨설팅, 장난감,실내놀이터운영등)	483백만원	
■ 자체 시비사업	2,398백만원																									
· SOS 틈새 돌봄 보육	140백만원																									
·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	58백만원																									
·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48백만원																									
·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309백만원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명절수당 지원	316백만원																									
· 어린이집 1~2세반 운영비 지원	492백만원																									
·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200백만원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지원	39백만원																									
·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비 지원	33백만원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기자재 구입	280백만원																									
· 육아종합지원(육아지원컨설팅, 장난감,실내놀이터운영등)	483백만원																									

연번	내 용	비 고
36	아이들 방학에 점심 한 끼 지원해주세요.	아동정책과 인구담당관
	<p>군산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급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p> <p>① 저소득 가정이나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경우, 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급식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2025년 78명의 아동에게 방학 중 부식(식재료, 밀키트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p> <p>② 또한 관내 46개소 지역아동센터에서는 1,343명의 아동들에게 방학 중 돌봄과 학습지원,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p> <p>③ 방학 중 초등 돌봄교실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중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 여름방학 4주, 겨울방학 8주 동안 46개교 1,030명 학생에게 도시락 지원할 예정입니다.</p> <p>앞으로도 우리 시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p>	
37	농어촌, 구도심에 인구유입을 위한 기본교육 보육기관을 군산시에서 거점형으로라도 운영지원해 주세요.	아동정책과
	<p>2025년 군산시 보육정원 충족율은 59.4%이며 농어촌과 구도심 소재 어린이집은 정원이 평균 충족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지역 아이들의 보육을 위해 운영중으로 인구 유입을 통한 어린이집 유지 대안으로 거점형 운영비 지원을 요구하나 다른 지역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지원방법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p> <p>그러나 앞으로 영유아 수 감소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및 구도심 어린이집에 기존 사업외 시간제보육, 틈새보육 등 특수하게 추진되는 보육사업에 대해 참여를 확대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 구도심 어린이집 현황 (22개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명동 3, 신평동 7, 삼학동 3, 중앙동1, 흥남동 8 <p>○ 농촌소재 어린이집 현황 (13개소)</p> </div>	

연번	내 용	비 고
38	<p>농촌 지역 어린이집 영유아 감소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유아를 위한 농어촌 지원 계획이 있을까요?</p>	아동정책과 인구담당관
	<p>현재 군산시 농촌 소재 어린이집은 13개소이며 영유아 412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p> <p>농촌지역 어린이집 유형으로는 국공립2개소, 법인8개소, 민간2개소, 직장 1개소가 있습니다.</p> <p>농어촌 어린이집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매월 차량운영비, 농촌 보육교사 근무수당 등 5가지 사업이 지원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촌 지역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하는 영유아들이 양질의 보육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농어촌 어린이집 지원 내역 (*추가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대 아동비율 농어촌 특례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대 교사 1인이 보육하는 아동수 확대 허용 · 최소 필요지역 인건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대 교사 비율이 최소한의 기준에 미달 되어도 1반에 한해 인건비 지원 ·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 지원 : 매달 110천원 · 농촌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 : 매달 200천원 · 농어촌 법인 어린이집 지원 : 정원 및 정원 충족율에 따라 매달 200천원~280천원 </div>	
39	<p>청소년을 위한 체육문화시설 증설은 없으신가요?</p>	여성가족 청소년과 체육진흥과
	<p>군산시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체육과 문화 활동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p> <p>먼저, 2024년 12월 개관한 서군산체육센터는 하루 평균 1,100여 명이 이용하는 생활체육 거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곳에는 실내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헬스장, 탁구장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수영 강습과 요가·필라테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세대가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p> <p>또한 군산청소년수련관은 2025년 상반기에만 1,500여 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약 5만 7천여 명의 청소년이 참여했으며, 시설 이용자 수도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에는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풋살장 등</p>	

연번	내 용	비 고
	<p>야외 체육시설을 새롭게 확충하여 청소년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36개 청소년 동아리와 300여 명이 넘는 청소년 리더들이 댄스, 스포츠, 문화예술, 4차산업 분야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청소년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p> <p>이와 함께 월명종합경기장 내 25m 6레인의 수영장을 포함한 국민체육센터도 2028년 건립될 예정으로 청소년을 포함한 전 세대가 이용하기에 적합한 체육문화 공간도 자리를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p> <p>청소년들이 체육뿐 아니라 문화적 소양을 키울 수 있도록 군산시민회관, 예술의전당, 금강도서관·작은도서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다양한 문화공간도 운영·확충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공연 관람, 동아리 활동, 독서·창작 활동 등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p> <p>무엇보다 군산시는 청소년의 이동권 보장을 도시의 특수 시책으로 삼아 「중·고등학생 무상 시내버스」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제 군산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교통비 부담 없이 언제든지 시내버스를 타고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공연장 등 원하는 공간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 지원을 넘어, 청소년들이 군산 전역의 체육·문화 자원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열린 도시 플랫폼을 마련한 것입니다.</p>	
40	군산시 출산 정책에 대해 궁금해요.	여성가족 청소년과 인구담당관 보건소
	<p>군산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임신 전 준비 단계부터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p> <p>먼저, 예비 부모 지원입니다.</p> <p>결혼을 준비하는 신혼부부와 임신을 계획하는 예비 부모님들께는 예비맘 건강검진과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예비부부 준비 교실을 운영하여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를 위해 난임 진단 검사비와 난임 시술비, 한방 난임 치료비까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 기회를 확대하여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p>	

연번	내 용	비 고
----	-----	-----

다음으로, 임신부 지원입니다.

임신 기간 동안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엽산제와 철분제를 지원하고, 초보 부모를 위한 출산·육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산모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출산 이후 지원도 중요합니다.

출산 직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회복을 위해 전문 산후도우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고, 군산형가사서비스 지원을 통해 임신부 가정을 방문하여 청소, 설거지, 세탁 등 서비스 지원으로 가사 부담완화 및 가사 휴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100만 원 이하의 산후조리비 지원금과 20만 원 상당의 산후 치료 쿠폰도 제공하여 산모의 안정적인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 분	출산지원금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비 지원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지원 대상	군산시에 출생신고 및 부모는 모가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	당해 연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아 100만원 - 둘째아 200만원 - 셋째아 400만원 - 넷째아 600만원 - 다섯째아 이상 1,500만원 	25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아 200만원 - 둘째아 이상 300만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치료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등을 지원하여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을 돕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소득 가정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가정의 경우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아이를 키우는 데 꼭 필요한 필수 물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출산과 양육이 부담이 아니라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모님과 아이 모두가 행복한, 진정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군산’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연번	내 용	비 고
41	<p>저출산인 만큼 냉동 난자 지원사업 어떨까요?</p> <p>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난자 동결 시술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어 군산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만 난자 냉동 지원은 의료 서비스와 예산이 수반되는 새로운 정책이기 때문에, 효과와 대상 범위, 예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p> <p>특히, 정부 차원에서도 올해 4월부터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난자·정자 냉동을 지원하는 국가사업이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현재는 제한적으로 국가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p> <p>군산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지원,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등을 충실히 추진하면서, 정부 정책으로는 담아내기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지원책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p>	건강관리과
42	<p>출산지원확대, 결혼장려금 도입</p> <p>군산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가정을 위한 출산지원금을 지원중으로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조건 완화 등을 검토하여 모든 출산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p> <p>또한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확대할 예정으로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청년부부 스토디오,드레스,메이크업 지원사업과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청년들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 또한 시행할 계획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여 청년이 결혼을 결심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여성가족 청소년과 인구담당관 건강관리과
43	<p>군산시민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p> <p>군산시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2025년 18~39세 이하 군산시 청년 및 관내 중소·중견기업에게 총 8개 사업 291개의 일자리에 인건비 월 최대 160만원, 교육·자기개발비·운영비 등 기타지원비를 연 3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또한 지역정착수당, 복지수당, 인센티브 지급 등의 복지혜택도 제공하였습니다.</p>	일자리경제과

연번	내 용	비 고
	<p>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은 기업에게는 월 70만원, 청년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라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차등지급함으로써 청년 신규채용 기업에게 인건비를 보조하고 채용청년에게 근속에 따른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기업의 고용안정 및 청년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열어주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p> <p>공공부문 청년멘토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꾸준히 14~18명의 대학 졸업 미취업 청년에게 주 40시간 근무와 생활임금(10,730원)을 지급하고, 공공기관 실무경험의 기회 제공을 통해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취업 촉진을 도모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총 15명 선발하여 14개 부서 배치하였습니다.</p> <p>또한,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주력 분야 종사 청년 에게는 월 30만원씩 12개월간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였으며, 구직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을 지원하고, 면접 정장 무료대여 서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미취업 청년과 취업 초기 청년들의 정착 기반을 보완하고 고용안정 및 경제적 자립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p> <p>2026년에도 기존 사업과 더불어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청년근로자 상생내일채움공제, 재직 청년 활력 업(청년 근로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44	<p>군산시의 경제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합니다. 혹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요?</p>	일자리경제과
	<p>군산시는 미래 신산업 육성과 골목경제 활성화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경제 회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기차·이차전지 등 신성장 산업에 과감히 도전하여 기업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p> <p>새만금 국가산단이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되고, 군산국가산단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되면서 현재까지 29개 기업과 10조 3천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RE100 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p> <p>또한 지역경제 뿌리인 소상공인을 위해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공공 배달앱 배달의 명수 운영,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비 확보와 다양한 시책 발굴을 통해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 나가겠습니다.</p>	

연번	내 용	비 고
45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만들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
	<p>군산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p> <p>첫째, 지역화폐 군산사랑상품권을 통해 소비가 지역 내에서 이뤄지도록 유도하여 골목상권 매출 증대를 돕고 있습니다.</p> <p>둘째,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를 운영하여 민간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낮춤으로써 음식점 등의 영업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p> <p>셋째,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경영환경 개선자금도 융자 알선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p> <p>넷째, 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해 온라인 판로개척, 마케팅 교육 등 경영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돕고 있습니다.</p> <p>다섯째,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국가·지자체 공모사업 신청으로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에 힘쓰겠습니다.</p> <p>앞으로도 예산을 확보하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폐업 후 재기 지원 등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p>	
46	군산시에도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주택행정과
	<p>우리 시 현재 분양 중인 공동주택은 총 7개 단지 4,592세대이며, 이 중 831세대가 미분양으로 분양률 81.9%입니다.</p> <p>우리 시의 주택시장은 2022년 하반기부터 미분양이 발생하였으며, 2023년 3개 단지 1,646세대 공급 이후 현재까지 신규 공급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p> <p>주택시장 과열로 인한 투기 발생 냉각으로 인한 미분양주택 발생 시 중앙정부 차원에서 규제 또는 지원 정책 등을 시행하는 경우는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미분양 등을 사유로 공급량, 공급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없습니다.</p>	

연번	내 용	비 고
	<p>도시주택보증공사에서 지역별 미분양 등 주택시장 동향 점검을 통해 미분양 관리 지역을 선정·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에는 2023년 3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되었고, 2024년 6월 9일부터 현재는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도시 기본계획상 계획인구를 45만명에서 26만 4천명으로 변경하여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억제하고, 은파 주변 지곡동 일대 난개발 방지를 위해 2022년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기반시설과 개발사업이 병행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p>	
47	<p>군산에 파크골프장 세워주세요.</p>	<p>체육진흥과</p>
	<p>현재 오식도동 생말공원 내 18홀 파크골프장 15억 투입하여 2024년 12월에 준공 2025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p> <p>기존 수송공원에 18홀 규모 파크골프장도 운영 중이며 앞으로 생활체육 인프라를 점진적으로 늘려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p>	
48	<p>수도권 도시에 비해 놀거리가 적습니다. 대안으로 생활체육을 늘리면 어떠한지? 시의 정책은?</p>	<p>체육진흥과</p>
	<p>지방도시가 수도권 도시에 비해 여가와 체육 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탁구·족구 등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일상 속 체육 참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는 군산대학교와 군산시체육회가 협약을 맺어 대학의 체육자원과 지역의 행정 역량을 함께 활용하며 생활체육 저변을 넓혀가고 있습니다.</p> <p>군산시는 단순히 생활체육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전국 규모나 국제 스포츠대회 유치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새만금국제마라톤, 프로농구 KBL 컵대회, 국제철인3종 경기, 금석배 전국학생축구대회 등 다양한 대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거나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올해 4월에 열린 새만금국제마라톤에는 국내외 참가자가 1만2천 명이 참여하면서 단순히 경기를 넘어, 관광과 연계되어 지역경제 활력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p>	

연번	내 용	비 고
	<p>아울러 서군산 산단지역, 농촌 지역 등 체육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도 생활체육 기반을 점차 넓혀가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생활체육은 단순한 여가를 넘어 지역 공동체를 연결하고 세대 간 소통을 이끄는 중요한 매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산시는 시민 여러분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일상을 누리실 수 있도록 생활체육 기반 확충, 동호회 활성화, 스포츠대회 유치와 지역 마케팅을 균형 있게 추진하여, 시민들이 건전한 스포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49	<p>지곡동에 수영장을 만들어 주세요.</p>	체육진흥과
	<p>지곡동 주민 여러분께서 생활체육과 복지 향유를 위해 수영장 건립을 원하시는 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지역별로 체육시설이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신규 수영장 설치는 적합한 부지 선정과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어려움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생활체육센터를 신축하거나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할 때 수영장 시설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p> <p>우리시는 수영장을 포함한 공공체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총사업비 280억원을 투입해 2024년 12월에 서군산체육센터를 개관하여 본격 운영중에 있으며, 군산대학교와 협업을 통해 수영장이 포함된 지역연계 복합센터 건립도 추진중이 있습니다. 또한 향후 월명종합경기장내 월명국민체육센터도 건립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시민들의 체육복지 수요를 면밀히 살피고, 생활권 내에서 보다 편리하게 수영장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p>	
50	<p>조촌동, 구암동 등에 생활체육(배드민턴, 탁구, 족구, 농구 등) 증진할 수 있는 시설투자해주세요.</p>	체육진흥과
	<p>시민 여러분의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촌동, 구암동 등 인구 밀집 지역에 체육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드민턴장·탁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해당 동 지역에 복합 생활체육센터 건립을 중장기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p> <p>또한 동네 공터를 활용한 족구장, 농구장 등 야외 운동시설 설치도 검토하고 있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단계적인 시설 투자를 진행하여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p>	

